

# “기다리다 지친다” 나주혁신도시 대중교통 ‘불편’

### 시내버스 배차간격 30~50분에 나주시내 오가는 버스 노선도 6개 뿐 콜택시도 잡기 힘들어...주민들 “자가용 없이 살기 힘든 곳” 대책 호소

나주 빛가람혁신도시가 조성된지 10년째를 맞았지만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택시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고, 혁신도시~나주시내를 오가는 시내버스 노선은 6개에 불과하고 배차 간격도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50분까지다.

카카오 택시 등 플랫폼을 이용한 콜택시를 불러도 택시가 잡히지 않아 주민들 사이에서는 ‘택시 기피지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28일 ‘KOSIS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나주 혁신도시에 주민등록을 마친 인구는 3만 9488명이다.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지난 2014년부터 혁신도시에 동지를 들었지만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은 제자리 걸음이다.

주민들은 ‘혁신도시는 자가용 승용차 없으면 살기 힘든 곳’이라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 조영희(여·62·나주시다시면)씨는 “최소 일 주일에 한 번씩은 나주혁신도시 호수공원에 간다”며 “나주역에서 택시를 타면 혁신도시로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택시가 잡히지 않아 버스를 타고 나주시내로 돌아온 뒤 다시 택시를 이용한 적도 많다”고 토로했다.

나주혁신도시 지역민들이 소통하는 온라인 카페 등에서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택시가 원래

안 잡히나요?’ 등 교통불편을 토로하는 글이 수년째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실제 지난 28일 밤 9시께 광주일보 취재진이 나주혁신도시에서 ‘카카오’ 앱을 통해 일반택시를 호출했으나 30여분 지나는 동안 응하는 택시는 한 대도 없었다.

나주시에 면허가 등록된 택시는 총 269대(개인 155대·법인 114대)에 달하지만 나주혁신도시에서는 거의 택시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택시기사들도 나주 혁신도시에서 승객을 태우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입장이다.

15년째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이택근(61)씨는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기본적으로 택시 수요가 많지 않고, 한 번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모르다보니 콜이 들어왔을 때 목적지가 나주혁신도시면 아무래도 기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나주혁신도시에 택시 차고지가 단 한 곳도 없다보니 나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택시를 운영하는 택시 법인도 들어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정 시간대에는 더 택시가 안 잡힌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 19기간 동안 저녁 약속 등으로 외출하는 지역민들이 줄어들면서 밤 시간대에 운행하는 택시기사들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원래 택시가 거의 다니지 않던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대중교통 이동 수단인 버스로 나주 혁신도시를 경유하는 노선은 총 15개지만 산단으로 가는 노선을 제외하면 단 6개만이 나주시와 광주로 오가는 노선이다.

혁신도시에서 나주시내로 가는 7000번, 7001번, 7002번 버스의 경우 배차간격이 30~40분으로 매우 길고, 광주행 광역버선인 997번, 998번 버스는

배차간격이 무려 50분이다.

나주시가 이런 사정을 감안해 지난 9월 가까운 버스정류장에서 나주혁신도시 내 다른 정류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콜버스’ 시범운행을 시작했다. 지난 10일 나주시 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 이상이면 택시운영 활성화를 유도하는가 하면 지난 2월 택시 수요 대비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개인택시부제를 해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부족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주민들은 입을 모은다.

한편 광주-나주간 출·퇴근 수요는 인근 시·군 중 가장 많은데도 대중교통이 열악하다는 점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 전국혁신도시포럼’은 29일 전남연구원 8층 대회의실에서 빛가람 혁신도시 주변 광역철도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또 음주운전하다...보행자 치어 숨지게 해 50대 운전자 항소심서 원심 두 배 형 선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5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보행자를 숨지게 해 원심의 두 배에 달하는 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평호)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8시 10분께 술을 마시고 신안군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B(63)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800m 가량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B씨를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13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각각 벌금형이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B씨가 인도가 없는 가장자리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란히 보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발생후 B씨를 구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유족을 위해 4000만원을 공탁 했지만, 술에 취해 면허 없이 운전해 보행자를 숨지게 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 “건보공단 자체 규칙 적용한 요양급여 환수는 위법”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자체 지침을 토대로 요양급여를 환수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병원을 개설한 의사 A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이 지난 2021년 6월 A씨 등을 상대로 내린 4억 21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A씨는 다른 의사 2명과 함께 광주시 서구에 병원을 공동으로 개설해 운영해오다 지난 2012년 자동차 보험 환자의 보험 진료수가에 대해 허위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2012년 10월부터 11월까지 2달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공단은 2017년 6월 정지처분 기간 중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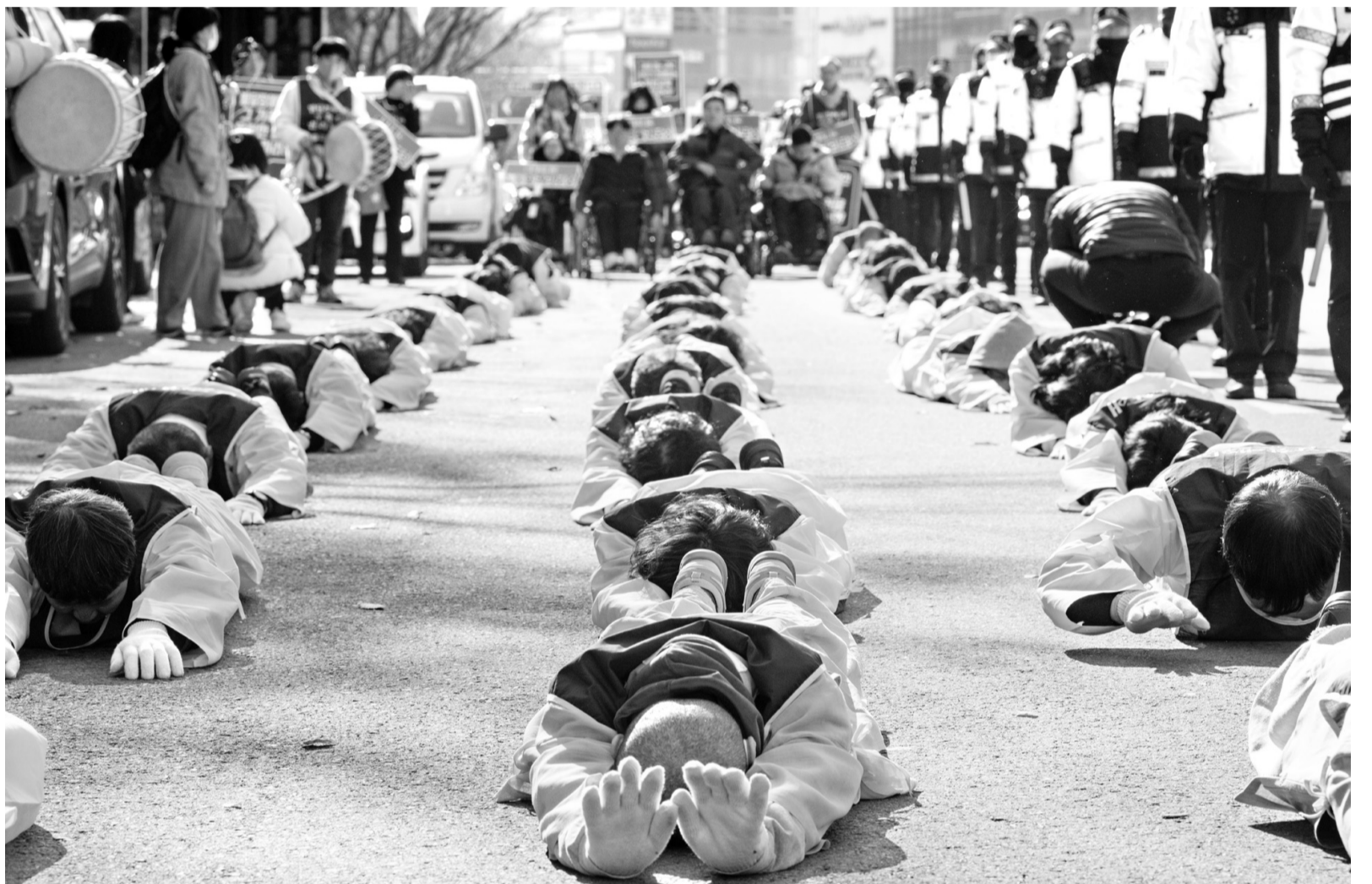
된 요양급여 비용 5억 3000여 만원을 환수한다는 통지를 A씨 등에게 보냈다.

공단의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1년 재판부는 공단의 처분에 대해 재판관 일탈·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단은 이후 자체 지침에 따라 지급한 요양급여 비용 5억 3000만원중 20%를 감경한 4억 2100여 만원을 환수하겠다고 재차 고지 했고 A씨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단의 지침은 환수결정액 일부에 감액·조정하는 등 기준을 설정할 목적에서 내부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행정규칙에 해당한다”면서 “지침에 따른 처분이 곧 적법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발달장애인 부모들 ‘간절한 오체투지’ 발달장애인 가정 부모들이 28일 광주시 서구 무각사 인근 도로에서 발달장애 자립생활권과 통합교육권 등을 촉구하며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사찰 토지보상 갈등에...스님이 차량 8대 ‘황황’

### 광주남부경찰, 불구속 입건

시공사와 사찰 소유 토지 보상 문제로 갈등하던 70대 스님이 골목에 주차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경찰에 붙잡혔다.

### 광주남부경찰은 70대 승려 A씨를 특수 재물손

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20분께 광주시 남구 송하동의 한 골목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8대를 들이받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사찰 소속 승려인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개발 구역에 포함된 사찰 토지 보상 문제를 두고 시공사와 갈등을 빚던 중 감정이 격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 등을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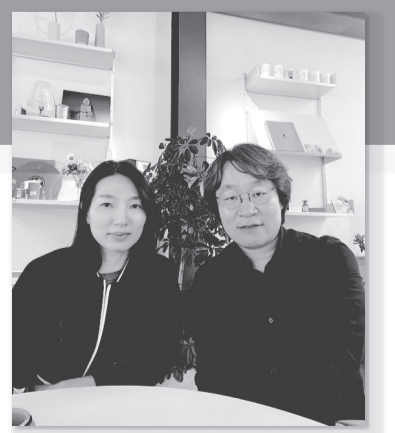
- 이호동 <달이 되련다>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